



레고를 소재로 작업한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한 정송규 화백.

“작품 속 수많은 점은 내 삶의 흔적”

정송규 개인전, 무등현대미술관
내년 3월까지 3부에 걸쳐 전시
레고·조각보 작업...아카이브 공개

전시장 걸 작업실에서 만난 노(老) 작가는 결국 100호가 넘는 캔버스를 다시 짜 왔다며 웃었다. 작은 점들을 끝도 없이 찍어가는 작업은 만만찮은 공력이 들어 앞으로 대작 작업은 좀 줄이려고 했지만, 지금 작업 중인 '만남' 작품은 아무래도 100호 3개가 이어질 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완성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다.

정송규(77) 작가의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모두 3부에 걸쳐 내년 3월까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열린다. 마침 연말 개 초선대 김승환 교수가 정 화백의 작품 세계를 다룬 책도 발간 예정인 정 화백은 "이번 전시가 아마도 광주에서 선보이는 마지막 전시가 되지 않을까"한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1일까지 이어지는 1부 전시는 '오늘이 기적입니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전시에는 그의 대표적인 조각보 시리즈와 수 만개의 점을 찍어내는 점묘 작품들이 나왔다.

60년이 넘는 그의 그림 인생에서 고등학교 은사 오승우 선생, 대학 때 만난 임직순 선생의 가르침은 큰 힘이 됐다. 지난동 집에서 몇 시간이고 작업에 열중하던 오승우 선생의 모습이나, 자신의 작품을 볼 때마다 구체적인 가르침 대신 언제나 "뭔가 더 나은 세계가 있을 텐데"하던 임직순 선생의

말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뭔가'를 찾으려했던' 그의 '삶의 좌우명'이 됐다.

아티스트로,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 살아온 그녀는 40대 중반에야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바쁜 일과 중 틈새'를 찾아 작업하던 시절을 지나 아이들이 큰 50대부터는 한 눈 팔지 않고 꾸준한 작업을 이어갔다.

그는 작업 소재를 일상에서 찾는다. 이번에 나온 신작 'delight-삶'은 미술관 앞 개미굴을 보고 작업한 것이다. "개미굴을 한참 들여다 보는데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수시로 나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바빠 움직이더군요. 인간이 볼 때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말이죠. 신이나 자연이 우리를 볼 때, 아마 우리가 개미를 보는 듯한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무심한 듯 하면서 묵묵히 일상을 이어가는 존재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큰 화면을 수많은 작은 점과 선으로 메워가는 제 그림처럼 우리도 일상을 그렇게 담담히 채워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각기 인물과 풍경 등을 그리다 변화를 모색하던 그는 2000년 '조각보' 작업을 시작했다. 엄마, 며느리,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등 '나와 가까운 이들'이 결국 '어머니'였고, 그런 어머니의 세계를 들여다보자는 생각이 어머니의 장롱을 뒤져 낡은 조각보를 발견했다.

"조각보의 조형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죠. 어머니들은 짜투리 천으로 어쩔 그런 배색과 조형성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닳아진 쪽빛 조각보를 보고 영감을 얻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조각보에는 가족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싶은 기도의 마음과 영원한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제 작품에 나타나는 작은 조각과 면들은 제 삶의 시간이자, 살아온 흔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각보 작업은 2011년부터 조형성이 가미돼 좀

더 역동적이고 리드미컬한 율동감이 부각되는 작품들로 구현된다. 이번 전시에서도 만날 수 있는, 4개의 대형 캔버스를 붙여 만든 세월호 소재 작품 '생명의 소리'가 대표적이다.

이번 전시에는 장난감 '레고'로 작업한 'Delight-관계' (2012)도 나왔다. "손자들이 갖고 놀던 레고를 보고 그 색깔에 푹 빠졌어요. 화려하고 다양한 색깔과 나열방법에 따라 집도, 비행기도 만들고 상상하는 모든 형태를 만드는 걸 보고 작품으로 해봐도 재밌겠다 생각했죠.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상을 만들어 내는 게 즐거웠죠. 다시 작업해 보고 싶어요."

2층 전시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작품 700여점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또 아카이브를 공개한다는 생각으로 전시실 옆 개인 공간도 오픈했다. 오는 12월2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2부 '내가 살아온 이야기' 전에는 수천 수만 개의 점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물결을 만날 수 있는 작품 20여점이 전시되며 3월 한달간 열리는 3부 '드로잉' 전에서는 초기 작품 12점과 드로잉 250점이 걸릴 예정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데 대해 후회는 없죠. 예술은 보이기 위한 것,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술은 본능이죠. 밥 먹듯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하나라도 더 그렸으면하는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번에 정리 작업을 하면서 무엇보다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애정과 도움을 준 이들이 참 많았구나 새삼스레 느꼈죠."

며칠 전 누군가에게 받은 호박의 유포한 모습이 재미있어 이런 저런 드로잉 작업을 해 볼 생각이란 그는 "일상에서 얻은 이야기로 작업하는 요즘이 참 편안하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운 활력 샘솟을 수 있도록

지역 중견작가 6명 참여 '침' 전, 22일까지 소암미술관

'코로나 19로 지친 당신을 위로합니다.' 소암미술관(관장 양동호)은 22일까지 기획초대전 '침'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김근희·김종안·김효삼·설상호·전병문·한부철 등 모두 6명의 작가가 참여해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김근희 작가는 아름다운 계곡의 풍경과 녹색 식물을 세밀하게 묘사하며 자연의 향수를 느끼게 한다. 김종안 작가는 꽃밭을 거니는 사람들의 향토적 풍경을 통해 서정적 감성을 자극한다.

김효삼 작가는 국내의 여행에서 관찰한 풍경을 수채화로 표현하며 설상호 작가는 산의 능선을 배경으로 화면에 떠있는 도사기를 화폭에 담아 삶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이끈다. 전병문 작가는 은행나무, 모란꽃, 벚꽃을 묘사하며 계절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또 한부철 작가는 벽을 타고 오르는 들꽃, 수면



한부철 작 '담다-日'

위로 떨어지는 꽃잎, 넓은 하늘 가운데 홀로 피어 있는 꽃 등 자연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전시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우리들의 향기'

광주장애인미술협회 작가 29명 참여... 1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장애를 딛고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일구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오는 15일까지 미술관 본관 로비에서 (사)광주장애인미술협회(회장 이진행)와 공동으로 '우리들의 향기' 전을 개최한다.

1992년 창립된 광주장애인미술협회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확대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고하고 지역 장애인 미술 지망생들의 진로개발과 창작을 통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함께 개발하고 연구,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번 전시에는 모두 29명의 광주장애인미술협회 소속 작가들이 참여해 서예·한국화·서양화·금속공예·목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참여작가는 고경주·고오주·김기자·김봉진·김선환·김종훈·문경양·박진·양경모 등이다.

광주장애인미술협회 이진행 회장은 "특별히 장애인 작가들의 남다른 질곡과 애환의 아픔을 승화



양경모 작 '하늘 빛 구름'

시켜 만든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가 지역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몸은 멀리, 그러나 마음은 더 가깝게'

코로나 백신개발 프로젝트 공연, 14일 광주아트홀

코로나19를 음악으로 극복하기 위한 공연이 펼쳐진다.

'코로나 백신개발 프로젝트-원소기호 M.U.S.I.C'이 오는 14일 오후 5시 광주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HMM엔터테인먼트가 '몸은 멀리, 그러나 마음은 더 가깝게'를 주제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준비했다.

공연은 '내 꿈, 우리의 꿈을 위한 음악', '내 사랑, 우리의 사랑을 위한 음악', '나, 우리를 위로해주는 음악', '내 미래, 우리의 내일을 밝혀주는 음악', '내게,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음악' 등 5개의 장르로 구성됐다.

뮤지컬 '시라노' 중 '거인을 데려와', 뮤지컬 '영웅' 중 '영웅을 비롯해 페데리코 파치오티의 'Life is a miracle', Maroon 5의 'Memories' 등을 선사한다. 또 '간헐성', '그날', '상록수', 'Raise you up', 'The prayer', '선물'도 들려준다. 무대에는 HMM엔터테인먼트 박영렬 대표와



김우성

이애실

조정희 호남대 교수, 재즈보컬 김은영·정은송, 성악가 김수·김우성·류건우 등이 오른다. 재즈피아니스트 이애실·임하나 일렉기타 오주석, 드럼 서담도 함께 한다.

공연은 광주아트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10-2561-274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최미애, 정선화의 동편제 판소리' 14일 전통문화관

전통문화관은 오는 14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무형문화재 이수자 연 '최미애, 정선화의 동편제 판소리' 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무형문화재 제9호 동편제 판소리 이수자 최미애와 정선화가 함께 꾸미는 무대로 깊은 소리의 동편제 판소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첫 무대는 최미애가 '수궁가'로 꾸민다. 용왕이 주옥을 지나치게 즐기다 병을 얻어 도사의 진맥을 통해 토끼의 간에 유일한 약임을 듣고 크게 탄식하며 수궁의 만조백관을 불러들이는 대목을 들려준다.

이어 '수궁가' 고고천변 대목을 정선화가 소리한다. 사대부인 별주부가 육지로 쳐올 나으며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해상과 산천의 경치를 노래하는 대목이다.

최미애는 광주빛고을국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정선화는 광주국악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고수로는 이병열(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이수자)이 함께 출연한다.

한편 이번 공연은 실내(서석당)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하며, 전통문화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다음 공



최미애

정선화

연은 무형문화재 이수자 연 '박미정, 송혜원의 동조제 판소리' (20일)가 예정돼 있다. 무료 관람. 문의 062-670-850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16 INNOVATION AWARDS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